

담배 -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과 광고금지, 금연의 규제는 안 된다 - 에 대한 의견
세계각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흡연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담배에 대한 논쟁도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들은 각각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는데, 미국과 같은 곳에서는 담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흡연실을 설치하는 등의 규칙을 만들고 있다.

담배는 하나의 기호식품이다.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흡연의 유·무가 결정되는 일이기 때문에, 흡연 자체에 대하여 비흡연자들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단지, 지하철이나 버스등의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비흡연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담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기호식품과 달리, 상대방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 담배를 피면, 그 영향력이 주위사람들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비흡연자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간접적으로 흡연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규제되어야 한다. 기호식품인만큼,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한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담배의 TV광고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한국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광고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또한, 광고의 특성상, 좋은면만이 부각되기 마련인데, 광고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인구가 담배를 애용하게 될 것이다. 담배가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청소년에게도 이용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청소년들은 정말로 담배가 좋아서가 아니라, 궁중심리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담배의 피해로 인한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지금, 광고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흡연을 인정해주는것은 좋지만, 그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